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Column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설립과정, 비전과 과제

Interview

인천여성회 김영란 회장과과의 만남

▶ 지난호 보기

2013년 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IDI 소식



연구원 종무식 및 시무식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는 지난해 12월 28일, 대강당에서 종무식을...

Zoom 人



인천여성가족재단 흥미회 정책연구실장
우리 연구원 소속 '인천여성정책센터장' 흥미회 박사가 2013년 1월 ...

Zoom I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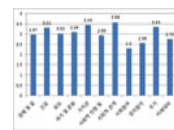
백범로, 소금밭 위에 놓인 길
백범로는 인천 서구가좌동에서 남동구 장수사거리까지를 잇는 총연장 10...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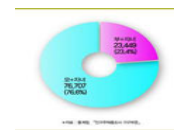
여성친화도시 비엔나
70년대 후반~80년대 초 '방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던...

IDI 연구



인천여성 행복수준과 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최근 '행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자주 정책적 목표표로 ...

인천지표



통계로 본 인천의 가구 특성
201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인천시의 가구 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설립과정, 비전과 과제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3년 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장 부 연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천여성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재)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후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드디어 2013년 1월1일 출범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재단이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 나갈 것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의 재단 설립 요구

사실, 인천에서 여성·가족과 관련한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자는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인천시는 이러한 여성의 요구를 수렴하여 2004년에 인천발전연구원 내의 '인천여성개발센터'(2006년 인천여성정책센터로 명칭변경)를 개소하고, 매 해 예산을 지원하였다. 그 당시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인천여성개발센터를 둔 이유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뿐 아니라, 여성가족관련 연구가 다른 분야의 연구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인천여성정책개발센터가 다른 연구 분야와도 협업하면서, 인천발전연구원 내에서 커 나가기를 희망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직 확장이 되지 않으면서 지역 여성계는 독립된 재단의 설립을 촉구하게 되었다.

서부여성회관의 건립 및 개관을 앞두고,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인천여성정책센터를 서부여성회관으로 이전, 독립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당시는 인천시 재정상황이 양호한 편이어서 여성계가 원했다면, 쉽게 독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원 내 인천여성정책센터로 존재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천여성정책센터가 인천발전연구원의 내부조직화 되면서 독립적인 예산편성이나 인력확충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조직개편과정에서 센터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여성계는 더욱 독립적인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의 요구로 수렴되었다.

2.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의 결합체로서의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인천여성정책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간 마련, 인력 충원 등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인천시 재정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안이 나오게 되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던 인천여성문화회관의 사회교육기능과 인천여성정책센터의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이러한 구상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가족 전문기관은 연구기능 외에 교육기능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천여성정책센터에서는 그간 연구기능 외에 공무원 성 인지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가 교육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교육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 다른 한편, 여성사회교육이 점차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교양강좌 중심의 인천여성문화회관의 여성사회교육도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결합체로 하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다.

인구기능과 교육기능의 설립제도의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설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회였다.

3. 비전과 과제

인천여성가족재단은 '평등하고 행복한 인천시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성평등이 없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해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지역여성들의 수요를 고려하고 인천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인천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인천시에서 지금까지 여성인권이나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나 정책개발은 미진한 편이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인천시가 여성친화적이고 가족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가족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기관의 헤드쿼터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성 및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이 있으나, 개별 기관들의 사업대상과 내용이 중복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실질적인 욕구조사와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수행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가 교육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교육사업은 공무원 및 다양한 분야의 실무전문가들이 성 인지를 향상시키고,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직무교육에 국한되어서 안 되며,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학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하여, 국내외 여성가족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 의회, 행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독립된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국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필요하다. 인천시의 자매도시인 키타큐슈에 설립된 아시아 여성교류연구포럼 재단과의 협약이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타시도 여성전문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재단이 설정한 비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인천시를 구현'하는 길인지 항상 성찰하면서 인천여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천여성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재)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후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드디어 2013년 1월1일 출범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재단이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 나갈 것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3년 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여성정치의 세력화를 위한 여성단체 중심의 준비된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한 때

여성정치의 세력화를 위한 여성단체 중심의 준비된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한 때

아프리에 78호에서는 인천여성회 김영란 회장을 만나 인천의 여성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이라는 주제로 인천 여성의 삶과 행복, 인천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인천여성회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천 여성의 삶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되는 길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영란 인천여성회 회장

Q 인천에서의 여성의 삶과 행복

인천은 수도권에 속하고, 서울 위성도시지만 서울이 받는 혜택과는 차이가 있고, 그렇다고 다른 지방처럼 공기가 좋거나 편안함이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여성회원들조차 자녀교육을 위하여 언제 이사 갈지를 얘기하고, 따라서 이주율이 높고, 토착민도 적고, 투표율도 낮고, 학업성적도 최하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인천은 안정한 도시, 또는 정형화된 도시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인천에서 태어나 47년을 살고 있는데, 살면 살수록 인천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출산율이 타 시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기사도 보았어요.

그렇지만, 여성들에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이나

환경 문제에 취약하고, 특별히 인천에 온 손님을 딱히 함께 갈만한 곳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문화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난 공원이나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섬 지역은 오히려 인천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요. 또한, 여성들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여전히 많고, 성평등 문제를 얘기할 때도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인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이 이런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 나가면서, 여성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시로 바뀌어야 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인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인천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올해로 인천여성회가 설립된 지 9년째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성단체는 전체적으로 30개가 넘고, 직능적인 형태의 단체까지 포함해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여성운동 단체는 7개가 있습니다. 그 중 저희 인천여성회만 자생적인 단체이며 유일한 지역여성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안정적으로 20여년간 활동을 해온 반면 저희는 막막하게 시작한 편입니다. 그래도 인천지역은 노동운동이 활성화 되어서 여성노동자회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민우회나 저희 인천여성회는 지역여성들의 고충이나 고민을 같이 나누고, 성평등 문화를 지향하고 있고, 또, 이주 여성이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여성단체도 있어서 분야별로 자기 역할을 나누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선거 이후 조례 제정이나 관과의 협약 하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는 방향으로, 관, 민 구분보다는 협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들어선 만큼 박근혜 정권이 앞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한 분석도 해야 하고, 법안화 되거나 여성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으로 내건 여성정책들이 실현화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실제로 여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의 지표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7개 여성단체에게는 2014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NGO 단체들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정치의 세력화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여성들의 네트워크화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신의 불이익이나 문제에 대해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하는 것을 정책화해서 후보로 만들 수 있는 여성단체 중심의 준비된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인천에는 만들어지지 않은 여성입장을 대변하는 사회세력, 사회지도자,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인천 여성운동에서 인천여성회의 위상과 역할

성불평등 문제는 인식문제여서 사회적 변화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평등을 문화적으로 접근해보자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문화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여성영화제의 출발이었습니다. 영화제를 통해 여성인권과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대변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지요. 현재는 30, 40대 여성들을 주로 만나면서, 그들의 요구인 교육문제에 접근해서 쫓대 있는 부모 교육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평화와 안전을 실천 중입니다. 우선 회원 수가 제일 많은 부평에서 안전마을을 시작해보자 해서 여성회원들이 '아여지기', 즉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마을, 아동과 여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부평에 문방구, 가게, 식당 등 147개 안전지킴이집을 만들어 위급한 상황에 뛰어들어가면 보호해주는 제도인데, 실태조사를 해보니 포탈만 세워진 상태고, 대부분이 장사하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명만 한 것에 불과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아이들과 여성들을 7,8인 1조로 나누어 안전지도, 즉, 범죄가 자주 일어난 곳을 찾아가서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찍고 기록하는 일도 했습니다. 범죄지역은 대부분 어둡고, 가로수가 막혀 있고, 가로등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를 도시설계적으로 바꾸면 범죄는 방지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드웨어를 바꾸기 위한 정책, 가로수를 옮기고,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계약을 하는데, 도시를 어떻게 컨설팅하는지 팀들이 같이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해 선정되는 대상은 정책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인천여성회도 참여했는데 다른 단체는 주로 하천 복원 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성평등안전방안을 내놓으니 당황한 기색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인천이 일등을 하고, 전국 대상을 수상해 인천여성회의 '아여지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만의 힘으로는 움직여지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움직여서 정책적인 것으로 연결하면 성평등한 문화 확산, 교육문제, 안전마을 등을 핵심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Q 인천 여성의 삶과 행복에 기여할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바라는 점

인천 여성단체들이 공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여성정책센터'가 내놓는 정책들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들보다 좋은 정책들이 많아서 실현만 된다면 인천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천여성정책센터가 인천발전연구원의 한 부서로 있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독자적으로 정책들을 생산해내는 것도 발전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통합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독립하는 자체는 좋은 일이고, 문화회관이라는 기능적인 것보다는 인천여성정책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을 만들어내고 네트워크화 하는 것에 주력하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대담 : 이 용 갑(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기록·사진 : 장 순 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아뜨리에 78호에서는 인천여성회 김영란 회장을 만나 인천의 여성과 인천여성가족재단이라는 주제로 인천 여성의 삶과 행복, 인천 여성운동의 현황과 과제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인천여성회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천 여성의 삶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이 되는 길에 대해 들어보았다.

연구원 종무식 및 시무식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3년 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 연구원 종무식 및 시무식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해 12월 28일, 대강당에서 종무식을 가졌으며, 2012년에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이 있었다. 앞서 27, 28일에는 2013년 주요 연구사업 선정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가진바 있다.

이어 새해 1월 2일에 가진 시무식에서 김민배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인천시민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집과 부동산, 일자리와 복지, 교육과 삶의 문제, 개인과 가족공동체가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천지역과 시민들이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은 물론 해외의 연구기관들과 함께 공동연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후, 원장과 직원상호간 신년인사를 나누었다.

■ 도시공원 및 습지관련 연구자문관 초청강연



지난 1월 4일, 2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습지 및 하천의 조성·복원·사례 및 동향'을 주제로 우리 연구원 연구자문관인 안창우 교수(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를 초청해 강연을 가졌다. 안 교수는 강연을 통해 '생태계 복원이 습지의 목적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지며 평가 시에도 습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성공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하면서 '습지조성의 실패와 성공은 습지조성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강연을 통해 GCF 사무국의 송도 유치 이후, 글로벌녹색경제수도로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시책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 내의 습지보전과 복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환경(비오톱) 지도작성 및 GIS 구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금번 초청강연의 내용을 근거하여 도시 내 습지와 과거 수문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수집에 힘쓸 예정이며, 도심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지속성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습지 복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책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시습지와 연계한 생태계획을 제안할 계획이다.

■ 인천도시인문학센터, 교동의 관방체제와 역사 세미나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센터장 김창수)는 '교동의 관방체제와 역사'를 주제로 <제3회 도시인문학세미나>를 지난 19일 강화도 교동 고리 고구촌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해양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해양문화자원 연구를 본격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강화지역 관방(關防)체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서해안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던 강화도 교동의 관방체제에 대한 연구 현황과 성과를 점검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인천시립박물관 배성수 학예연구관이 "교동의 관방체제와 유적"을 주제로 '교동의 변화과정과 출토유물 등에 근거하여 역사 속에 등장하는 교동도 동단에 위치하는 화개산성이 옛 고구려의 관리성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교동 역사문화 전문가인 교동 향교 한기출 총무가 맡아 서해안 해양문화자원으로서 강화도 관방체제의 연구 현황 및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인천도시인문학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강화도 교동의 관방체제의 역사적 의미가 구체화되고, 서해안지역 해양문화자원의 발굴 및 수집, 연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해 12월 28일, 대강당에서 종무식을 가졌으며, 2012년에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이 있었다. 앞서 27-28일에는 2013년 주요 연구사업 선정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가진바 있다.

연구자의 독립성과 연구하는 즐거움이 살아나야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3년 1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2013년 1월에 만난 idi people

연구자의 독립성과 연구하는 즐거움이 살아나야

인천여성가족재단 홍/미/희 정책연구실장

“아프리에 올해, Zoom 人 코너에 ‘IDI 사람들’을 선보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연구원, 행정사무직, 기능직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전직 연구원까지 여러 관계와 인연을 만나려 갑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원이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고, 가야할 길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구원 소속
'인천여성정책센터장' 홍미희 박사가 2013년 1월 1일자로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이 됐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12년 말에 인천여성문화회관과 인천여성정책센터를 통합, 인천의 여성관련 연구와 교육 및 네트워킹을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홍미희 박사는 2007년 4월 우리 연구원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 31일 퇴직할 때까지 계속 센터장을 맡은 최초의 연구자이다. 홍 박사는 몇몇 지인을 통해 인발연에 여성학 연구자 채용공고가 난 사실을 듣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센터장인 줄도 몰랐다. 그저 독일에서 15년간 유학하고 돌아온 지 1년 즈음 되는, '연구자'로서 지원한 것이었는데, 당시 김창섭 원장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중요시 여기고,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성정책기본계획까지 책임질 센터장을 찾던 중에 운 좋게 채용된 것 같다고 겸손해한다.

홍 박사는 현실과 상관없이 이론적으로만 연구했던 여성정책이 인천이라는 지역과 결합되면서 각 분야의 사람과 소통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실제 정책으로 생명을 갖게 되는 생생함이 좋아서 연구원생활이 무척이나 즐거웠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김창섭 원장님이 강조하셨던 연구자에 대한 지론인 "박사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공무원이 할 일과 박사가 해야 할 일은 다르다" 그리고, "연구자는 독심이 있어야 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좋았다. 그래서 홍 박사는 일하는 동안 행복하게 일하고, 연구자로서 판단할 때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었다. 즉, 옳다고 생각하는 걸 연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직장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 하지만, 김창섭 원장님 이후부터는 연구원의 성격이 시정 현안에 즉각적인 답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홍 박사는 지역현안에 대한 기초연구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걱정한다. 현재 연구원의 연구수행방식인 기본연구나 정책연구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연구에 대한 지원도 점점 축소되면서, 연구조사도 줄고, 보고서 양도 줄이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 양질의 연구보고서를 기대하기에는 어렵게 되어 버린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발전연구원은 홍 박사에게 있어 첫 직장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으며, 그래서 연구원에서의 직장생활과 일에 대한 큰 불만은 없었다. 다만, 연구원 자체의 분위기가 좀 더 조직원들간의 화합과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연구원은 그저 현 상태를 유지하고, 머무르려는 인상을 받아서 갑갑함도 있다. 그래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격려를 해주기보다는 의욕을 실추시키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또 한 가지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홍 박사의 입사 전후로 우리 연구원에 여성연구자가 늘었다가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



그 자체가 혹시 우리 연구원이 여성연구자가 지내기 힘든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닌가, 이를테면, 조직구조나 배려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원을 떠난 것이 개인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만, 새로 온 젊은 연구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 또한 점검이 필요한 때이고, 선배 연구자들이 젊은 연구자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제, 홍 박사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정책연구실장으로서 재단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 사업과 연구 기능 외에 공무원 성평등 교육,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가 교육이나 인문 복지 관련 교육 등 질 좋은 교육을 기획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연구와 정책개발은 여성정책센터에서 했던 일들에 분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고, 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종사자나 공무원 역량 강화는 좀 더 보강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총괄 기능 외에 홍 박사는 현재 인문학 교육 기획과 성별역량분석평가센터 운영, 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재단의 비전이나 방향을 만들어내고, 개별연구도 병행하면서 재단 내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홍 박사는 우리 연구원 내에서 인천여성정책센터가 지역발전연구원 내의 다양한 분야와 협업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성가족재단이 힘을 키우면서 도시계획이나 교통 분야 등 인발연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협업을 하고 싶은 바람을 밝혔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도 선임되었으니 인발연과 MOU를 체결해 노하우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만큼 정책연구실장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모든 면에서 활기찬 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는 새해 인사도 잊지 않았다.

홍미희 박사가 다시 한 번 연구자로서의 즐거움을 찾고,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정책연구실장으로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연구원과 함께 승승장구하기를, 2013년 1월에 소망해 본다.

■ interviewer : 이용갑(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글·사진 : 장순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우리 연구원 소속 '인천여성정책센터장' 홍미희 박사가 2013년 1월 1일자로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이 됐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12년 말에 인천여성문화회관과 인천여성정책센터를 통합하여 인천의 여성관련 연구와 교육 및 네트워킹을 위하여 탄생한 조직이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3년 1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백범로, 소금밭 위에 놓인 길



글 / 김창수(도시인문학센터 센터장)
사진 /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백범로의 유래

백범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에서 남동구 장수사거리까지를 잇는 총연장 10.9km의 도심 간선 도로다. 백범은 김구 선생의 호를 딴 것이다. 서울에도 백범로가 있다. 용산구 한강로(삼각지터)에서 용산구청을 거쳐 마포구 공덕동로터리에 이르는 연장 2km의 6차선 도로가 그것이다.

인천의 백범로는 가좌동 현대제철소 북문 근처에서 출발하여 경인고속도로와 교차하는 가좌육교와 나들목, 십정4거리를 지나간다. 이 일대는 산업공단이다. 다시 십정1동, 벽돌막 사거리를 거쳐 경인철도 굴다리 지난 다음 간석오거리의 경인로를 간석고가교로 통과하여 간석사거리, 만수주공사거리, 건설기술 교육원, 장수초등학교를 지나 인천대공원 앞 장수사거리에 이르러 끝난다.

인천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신작로에 김구 선생의 호를 붙인 것은 백범이 인천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민족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두 차례 수감생활을 인천 감옥에서 하면서 인천인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으며 인천 사람들도 그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백범 김구(金九 · 1876~1949) 선생이 처음 인천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의 나이 20세 때인 1896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듣고 분노하여 일본군 중위 쓰치다를 살해한 이른바 '치하포사건'으로 인천감옥에 2년간 수감되면서이다.

선생은 「백범일지」에 “인천은 내 일생에 뜻 깊은 곳이었다”는 내용을 술희하면서 “스물두 살에 인천감옥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스물세 살 때 탈옥 도주하였던” 내용도 자세히 기록하였다. 사형수 김구 선생이 사형 직전에 무기수로 감형되었다가 이듬해인 1898년 3월 19일 인천 감옥을 탈출하여 삼남지방으로 도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김구 선생의 인격에 감화를 입은 감리서의 순검 김정근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범은 당시 ‘인천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인천 개항장을 통해 유입된 신문물을 익히며 항일운동가로서의 사상을 정립했다’고 기록하고 있듯이 인천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로 탈출할 수 있었고, 나중 불굴의 민족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자양분도 인천에서 얻었다고 한다. 김구 선생의 아명(兒名)은 창암. 그 후 동학에 입도하면서 김창수로 개명한다. 그런데 김창수는 탈옥 후 인천의 민족지사였던 유완무(柳完茂 · 1861~1909)의 권유로 이름을 구(九)로 고쳤다고 하니 인천과의 인연은 더 깊을 수 밖에 없다. 유완무는 인천감리서에 갇혀 있던 백범 김구를 구하기 위해 감옥을 폭파시킬 계획까지 세웠던 인물이다. 유완무는 인천시 서구 시천동의 진주유씨 가문 사람으로 1900년대 초 북간도와 연해주로 망명하여 간도 등 국권회복운동에 종사했다가 민족운동의 파벌로 인해 암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선생이 인천감옥으로 이감한 직후를 회고한 「백범일지」의 한 대목이다.

나는 인천옥(仁川獄)에 수감되었다. 내가 인천으로 옮겨진 이유는 갑오경장 후에 외국인 관계 사건을 재판하는 특별 재판소가 인천에 있었기 때문이다. 감옥의 위치는 순검청 앞이었다. 내리(內里) 마루에 감리서(監理署)가 있고, 왼쪽은 경무청이었다. 감옥 앞에는 길을 통제하는 2층 문루(門樓)가 있었다.

바깥 주위로 높이 담을 쌓고 담 안에 평옥 몇 칸이 있었는데, 반 갈라 한편에는 징역수와 강도, 절도, 살인 등의 죄수를 수용하고, 다른 한편에는 이른바 잡수(雜囚), 즉 소송과 범법자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형사 피고의 기결수는 푸른색 옷을 입고, 옷옷 등판에 강도, 살인, 절도 등의 죄명을 먹글씨로 썼다. 옥외로 출역(出役)할 때는 좌우 어깨를 쇠사슬로 동이고, 2인 1조로 등쪽에 자물쇠를 채워 입퇴(押拜)가 인솔하고 다녔다.

-백범일지에서-

두 번째는 1911년 안락사건으로 5년간 투옥될 때 다시 인천감옥으로 옮긴 것이다. 두 번째 인천 수감 생활을 하는 기간에는 인천 축항공사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백범이 한국한 이름해인 1946년 봄에 전국을 순회할 때,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인천이었던 것도 인천에 대한 백범의 남다른 애정 때문이었다. 당시 인천을 찾은 백범은 옛날 자신의 탈옥을 도와준 감리서 순검을 찾았으나, 아쉽게도 그는 김구의 인천 방문 보름 전에 세상을 떠나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대중일보 1946년 4월 17일자)

인천대공원에는 1997년 인천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백범 동상을 건립했다. 백범 동상 곁에는 백범이 인천에서 감옥살이를 할 때 인천으로 와서 옥바라지를 했던 모친 관악원(郭樂園) 여사의 동상도 세워졌다. 그런데 이곳은 백범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인데다 접근성도 떨어져 백범의 업적을 기리는 장소로는 적합지 않다는 비판이 높다. 백범 동상은 그가 옥살이를 했던 인천 감리서가 있었던 내동의 언덕 위나 인근의 자유공원이 적절하다. 축항공사가 있었던 인천항 제1부두도 그와 인연이 있는 곳이다.

소금밭 위에 놓인 길

백범로도 백범의 인천생활과는 별 관련이 없는 길이다. 백범로는 지금의 북항 일대에서 간석 오거리까지 만입(灣入)한 바다를 메꾼 매립지 위에 개설된 도로기 때문이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이 일대는 주안염전으로 불린 천일제염 생산지였다. 주안염전의 역사는 대한제국기인 1907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금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바닷물을 가마에 넣고 끓여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방식을 '화염(火鹽)', '자염(煮鹽)'이라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해안과 섬 지역에서 화염이 많이 생산되고 있었고, 인천도 이른바 자염 생산지였다. 그런데 자염식 제염법은 해수를 끓이기 위해 많은 양의 땔감이 소요되고, 많은 양의 소금을 생산하기 어려운 방법이었다. 염전에 바닷물을 가두고 태양열을 이용하여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 방식인 천일제염(天日製鹽)은 대량의 소금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1907년,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인천 주안지역에 1정보의 염전을 조성하고 제염 실험을 한 결과 천일제염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염전을 개발하여 본격적인 천일제염을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염전은 조선총독부가 독점하여 개발했는데, 주로 경기만과 평안남도 광양만 일대에 집중됐다. 남쪽은 강수량이 많아 북쪽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만의 경우 조차(潮差)가 크기 때문에 대량의 바닷물을 염전에 가둘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대한제국기 이래 경기만 일대의 염전을 국가가 개발 관리하였기 때문에 주안염전과 남동염전, 군자염전은 대표적인 소금생산지였다. 주안염전의 공유수면이 70년대에 공업용지로 매립되면서 한국 최초의 천일제염지는 공단으로 바뀌었다.



1970년대 이전의 인천지도를 보면 주안염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다음 지도는 1960년대 초반 경기도 인천시 지도다. 이 지도에는 경인고속도로 건설 이전인 1960년대 초반의 인천시 가좌동, 십정동, 주안 일대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도화동에서 가좌동 사이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인천교와 주변의 염전과 갯골이 나타나 있다. 백범로는 이 갯벌과 염전을 매립한 땅에 조성된 소금밭위의 도로인 셈이다.



◀ 1963년경 인천시 지도
(육군측지부 편집, 1970년 국립건설 연구소 발행, 축적 1/50,000)
경인철도가 직각으로 흰 동암역 왼쪽으로 만입한 바다의 염전지대가 펼쳐 있다.



◀ 주안염전 채염작업 광경

소금밭의 수사학

소금밭 염부를 노래한 작품으로 이가림 시인의 「水車 위의 생」이 있다.

눈 쓰린 땀방울 흘리며
흠치며
걸고 또 걸어서
가까스로 다다른 명굴엔
언제나 아픈 외발로 디녀야 하는
넙떠러지 뿐

한 줌의 소금을 위해
한 가마니의 가난을 위해
우리 모두는
해가 지지 않는 水車 위에서
제 그림자를 밟고
또 밟는 걸까

땀벌 아래
눈 쓰린 땀방울에 젖어 걷는 자여
그대 부질없는 인생
한없이 바닷물을 퍼올리고
또 퍼올리노라면
언젠가
열명길에 들어
눈물로 빚은 소금 한 부대는
내놓을 수 있으리

- 「水車 위의 생」 전문 -



수차를 밟고 있는 염부: 재래식 수차(水車)로 갯골의 해수를 소금밭으로 퍼 올리는 작업 풍경

이가림 시인의 「水車 위의 생」은 염전 수로에서 수차를 밟아 소금밭으로 바닷물을 퍼 올리는 한 염부(鹽夫)의 노동을 묘사한 작품으로, 인생의 의미를 근원적으로 되묻게 하는 음풍을 지닌 작품이다. 뜨거운 햇살이 내려 쪼이는 소금밭에서 원종일 수차를 밟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은, 굴러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산정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고 있는 시지프스의 고역과 영락없이 닳았다. 염부가 수차의 계단을 디디고 오르는 순간 수차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절망적 반복을 '걸고 또 걸어도 넙떠러지'라고 표현하였다. 염부의 수차 밟기는 동반자도 조력자도 없이 오직 나무 손잡이에 의지한 채 반복되는 지루하고 고독한 노동이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수차(水車)'이며 주위엔 '제 그림자' 뿐인 것이다. 시지프스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과 싸웠듯이, 이 노동의 목적은 한 줌의 소금을 얻는 것이다.

소금은 생명유지를 위해 소중한 물질이다. 그래서 동서양 언어적 전통에서 소금은 '생명'이나 '정의(正義)'를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물질로서 소금은 풀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와 같은 염전에서, 염부들이 고독하게 '쓰린 땀방울'을 흘리며 일한 결과로 생산된 것이다. 이 고독한 노동의 결과는 '눈물로 빚은 소금 한 부대'이다. 이것은 비단 염부의 것만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시지프스들이 인생을 마감하는 날 받게 될 삶의 결산서가 아닐까?



주안염전 자리를 지나는 백범로(주안공단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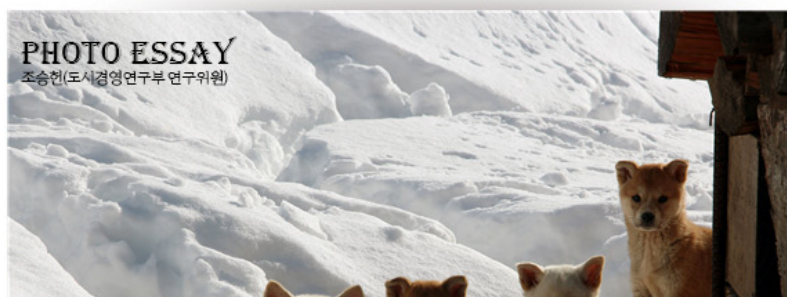


PHOTO ESSAY
조승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길에서 만난 맛

글 장순지(사투처)
사진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서문통닭삼계탕

30년 전통 TEL. 425-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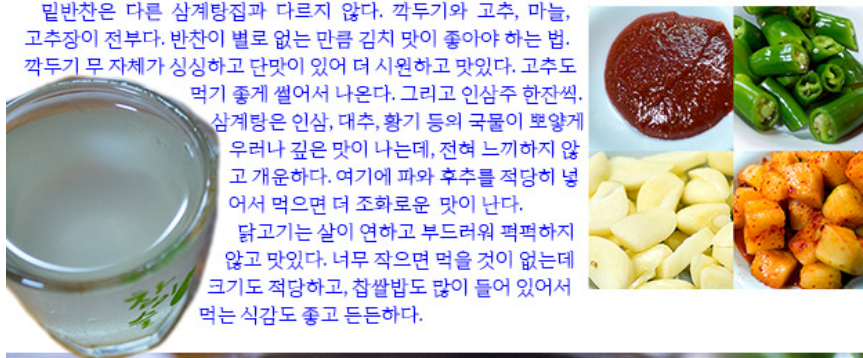
전기구이 통닭 삼계탕

야들야들 뽀얀 속살과 진하고 깊은 국물맛으로 승부

서문삼계탕

여름철에 즐겨 찾는 보양식이지만, 요즘 같은 한파에도 뜨끈하게 한 뚝배기 하면 추운 몸을 녹여줄 음식이 삼계탕이다. 주안역 옛 시민회관 사거리 교보빌딩 옆에 있는 '서문 삼계탕'은 한자리에서 오픈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30년을 넘게 장사해온 이름난 음식점 중 하나다. 누가 봐도 전통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를 뽐내는 가운데, 전기구이 통닭과 삼계탕만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여름 복날에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는 집으로 유명하다.

밑반찬은 다른 삼계탕집과 다르지 않다. 깍두기와 고추, 마늘, 고추장이 전부다. 반찬이 별로 없는 만큼 김치 맛이 좋아야 하는 법. 깍두기 무 자체가 싱싱하고 단맛이 있어 더 시원하고 맛있다. 고추도 먹기 좋게 썰어서 나온다. 그리고 인삼주 한잔씩. 삼계탕은 인삼, 대추, 황기 등의 국물이 뽀얗게 우려나 깊은 맛이 나는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개운하다. 여기에 파와 후추를 적당히 넣어서 먹으면 더 조화로운 맛이 난다. 닭고기는 살이 연하고 부드러워 퍽퍽하지 않고 맛있다. 너무 작으면 먹을 것이 없는데 크기도 적당하고, 찰쌀밥도 많이 들어 있어서 먹는 식감도 좋고 든든하다.





전기구이 통닭을 주문하면 하얀 무와 양배추 샐러드가 나온다. 적당히 구워진 전기구이 통닭은 노릇노릇한 자태와 구수한 냄새로 시각과 후각을 사로잡는다. 후라이드 치킨이 가진 기름기를 쏙 뺀 맛이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좋아할 맛이고, 특히 본인처럼 찐찐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찾게 되는 맛이다. 전기구이 고유의 담백하고 깔끔한 통닭을 소금에 살짝 찍어서 맥주 한잔과 함께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궁합을 이룬다.

서문 삼계탕, 여름철 복날에만 찾지 말고,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지금 같은 때에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고, 기운을 돋우는 삼계탕으로, 건강한 겨울살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

* 주 소 : 인천 남구 주안1동 186-14 * 전화번호 : 032-425-3300

백범로는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남동구 장수사거리까지를 잇는 총연장 10.9km의 도심 간선 도로이다. 백범은 김구 선생의 호를 딴 것이다. 서울에도 백범로가 있다. 용산구 한강로(삼각지로터리)에서 용산구청을 거쳐 마포구 공덕동로터리에 이르는 연장 2km의 6차선 도로가 그것이다.

여성친화도시 비엔나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3년 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성인지적 관점으로 도시를 설계한다 여성친화도시 비엔나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한 경 현 부연구위원

70년대 후반~80년대 초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점차 성 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개발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성 주류화 전략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이다. 비엔나에서 도시계획에 여성의 특수한 조건을



▲1991년 전시회 포스터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주목 받게 된 계기는 1991년 개최되었던 '공공 공간은 누구의 소유인가-도시에서 여성의 일상 생활'이라는 전시회를 통해서였다. 이후 1992년 여성청(Women's Office)의 설립과 1998년 비엔나 도시계획국에 '여성의 일상생활과 특수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지휘본부(Vienna Co-ordination Office for Planning and Construction Geared to the Requirements of Daily Life and the Specific Needs of Women)'의 설치 등 적극적인 제도화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었다.

❖ 성 인지적 주택: 여성-일-도시(Frauen-Werk-Stadt) 프로젝트

비엔나 시 당국은 가장 먼저 성 인지적 주택을 건설에 주력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여성의 일상생활 패턴과 요구 조건들이 종종 무시되었던 주택 건설 계획 단계에서부터 무급 가사노동자의 요구를 고려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세탁실, 유모차나 자전거 보관실은 자연채광이 드는 곳에 배치하고 계단과 입구는 이웃과의 또 다른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의 구조화된 영역으로 설계하도록 하였으며 어둡고 불안한 곳으로 여겨지던 지하주차장은 조명의 채광을 높이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첫 번째 시범 사업인 Frauen-Werk-Stadt I (여성의 손으로 여성을 위한 주택사업, 360채, 1997년 첫 세입자 거주)은 매우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후 고령자를 위한 요양 문제에 추가 초점을 맞춘 Frauen-Werk-Stadt II와 Frauen-Werk-Stadt III (일명, 로사(rosa) 프로젝트) 또한 성공을 거두면서 현재 '여성의 특정 요구에 적합한 주택 건설의 계획 기준'은 주택건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주택 품질 테스트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Frauen-Werk-Stadt I



▲Frauen-Werk-Stadt I : 성인지적 주택

❖ 공원, 소녀들을 위한 공간으로..(More space for girls! Gender-sensitive park design!)

성 인지적 공원 디자인 프로젝트는 소녀와 소년의 상이한 공원 이용 방식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13세 전후 자신의 몸에 대해 새롭게 자각하기 시작한 소녀들은 공공공간이나 운동장에서 노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공원 디자인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공원의 공간을 점유하는 소년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왔으며 소녀들의 스포츠에 대한 차별화된 욕구와 관심은 반영되지 못했었다. 이에 비엔나의 다섯 번째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Einsiedlerplatz와 St.-Johann-park를 시작으로 소녀들의 야외활동을 저지하는 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개방적이 포가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성 인지적 공원 디자인(1)



▲성 인지적 공원 디자인 (2) : Drasche 공원

❖ 성 평등 표지판: '비엔나는 다르게 본다'



▲비엔나의 성 평등 표지판

비엔나 시는 2007년 '비엔나는 다르게 본다'라는 캠페인을 통해 '성 평등'을 강조하는 표지판으로 교체하고 있다. 아기를 안고 있거나 기저귀를 가는 사람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화되고 지팡이를 짚은 경로석의 그림도 할아버지에서 할머니로 바꾸는 등 과거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의 관점이 그대로 반영되었던 픽토그램에 상당한 변화를 주어 성 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도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매년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2011년 부평구와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만을 위한 도시정책이 아니다. 그동안 간과되었던 성 인지적 시각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정책결정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분배되는,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발전계획이다. 이제 여성친화도시로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인천시도 비엔나의 사례를 통해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70년대 후반~80년대 초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점차 성 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개발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성 주류화 전략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이다. 비엔나에서 도시계획에 여성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주목 받게 된 계기는 1991년 개최되었던 '공공 공간은 누구의 소유인가-도시에서 여성의 일상 생활'이라는 전시회를 통해서였다.

인천여성 행복수준과 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3년 1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여성 행복수준과 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홍미희 (전인천발천연구원 여성정책센터장 (현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행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자주 정책적 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 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로움이 자동적으로 정신적 삶의 질 혹은 행복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행복수준 자체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인천거주 여성들이 느끼는 행복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행복 지표의 구성과 조사결과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거주지, 연령 및 경제활동참여율을 기준으로 1,000명을 할당표집하여, 본인 스스로 평가하는 전반적인 행복점수, 생활영역에서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6개 영역 - 경제, 사회적 관계, 건강, 미래대비 등 - 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지역환경 - 복지환경, 행정환경, 안전환경 등 -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묻은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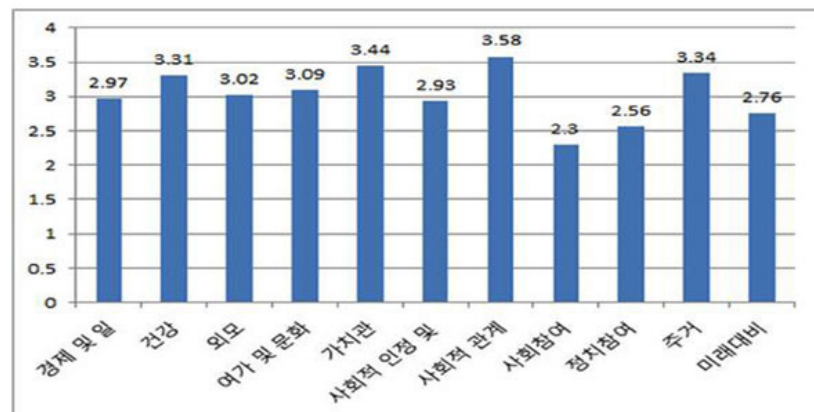
(1) 인천여성의 행복점수

가장 행복한 삶을 100점, 가장 불행한 삶을 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천여성 스스로 생각하는 현재 삶의 행복평균은 70.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점수는 최저 10점(0.4%)에서 최고 100점(2.7%)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여성이 70점(24.1%) 혹은 80점(26.2%)을 본인의 행복점수로 평가하였다. 이는 2010년에 강남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점수와 유사한 수준이다.

(2) 인천여성의 생활영역 만족도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인천여성의 생활영역 행복지표를 선정하고,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물었는데, 주요 영역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생활영역 행복지표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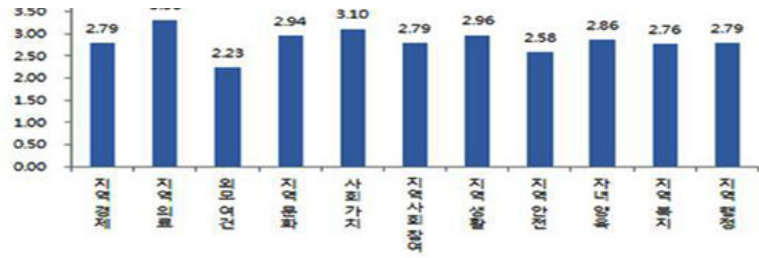


(3) 지역환경 행복지표

인천지역환경에 대한 행복지표는 11개 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면, 이에 대한 만족도는 <그림 2>와 같다. 행복을 구성하는 지역환경 지표에 대해서 인천여성은 개인 생활영역의 지표에 대해서보다도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가장 낮은 것은 외모여건과 지역 안전여건으로 5점 만점에 2.23점, 2.58점이었다.

<그림 2: 지역환경 행복지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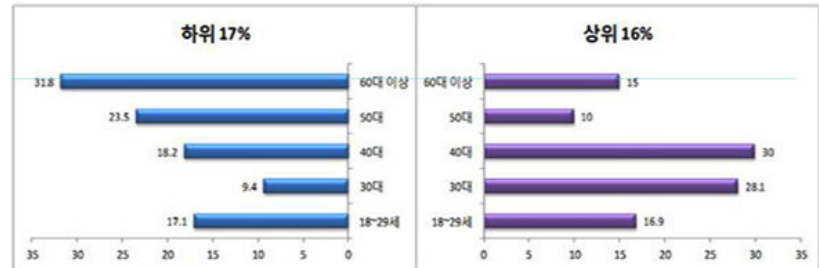
4.00
3.30



3. 행복점수 상하위 그룹 비교

행복점수 85점 이상의 비교적 행복감을 느끼는 집단 160명과 행복점수가 50점 이하인 집단 170명을 비교해본 결과, 행복점수 하위집단에는 60대 이상의 연령층 비율이 높았고, 30대나 40대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반면 행복상위 그룹에는 30대, 40대 비율이 높았다.

〈그림 3: 행복 상하위 그룹의 연령별 분포〉



학력별로 보면, 행복점수 상위그룹은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전문대 졸업자가 많았다.

〈그림 4: 행복 상하위 그룹의 학력별 분포〉



가구소득별로 보면 행복 상위점수 그룹에는 고소득층 비율이 높고, 하위그룹에는 저소득층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행복 상하위 그룹 가구소득별 분포〉



4. 정책적 함의

인천여성은 전반적으로 70점 정도의 보통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생활영역 지표 중 자신의 건강상태, 가족관계나 사회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특히 인천여성은 긍정적인 가치관과 관련되어 점수가 높게 나타나 인천여성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보다 현재의 자신의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비취업여성은 현재 하고 있는 가사나 육아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취업육구가 매우 높았음. 이는 일과 가족의 양립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취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강상태에 대한 인천여성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60대 이상, 중학교 졸업이하, 사별여성들이 건강에 관한 한 취약한 그룹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사회환경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인천여성의 만족도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지역사회 여건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지역의 '안전환경 조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환경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낮는데, 이는 복지예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외의 결과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단순히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수요자의 욕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과, 노인·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5. 향후의 과제

이 연구에서 행복연구를 최초로 실시하여, 구성지표에 대한 만족감 및 전반적인 행복점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행복에 관한 연구는 일회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시하여 변화추이를 살피고, 행복수준이 향상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별도의 심층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영역별 분석을 넘어 60대 이상의 여성노인, 20대 인천여성 등 세대별로 분류된 집단에 대한 집중분석과 거주지별, 학력별, 결혼여부별 집단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행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자주 정책적 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 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로움이 자동적으로 정신적 삶의 질 혹은 행복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행복수준 자체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3년 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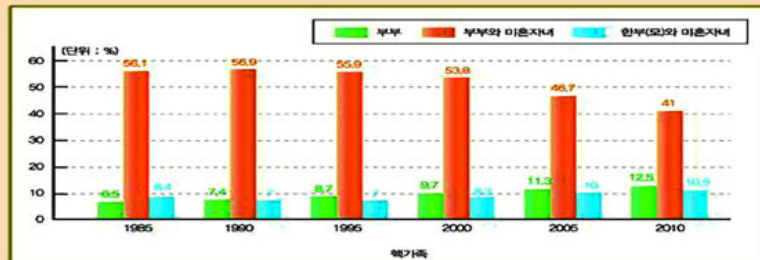
통계로 본 인천의 가구 특성

통계로 본 인천의 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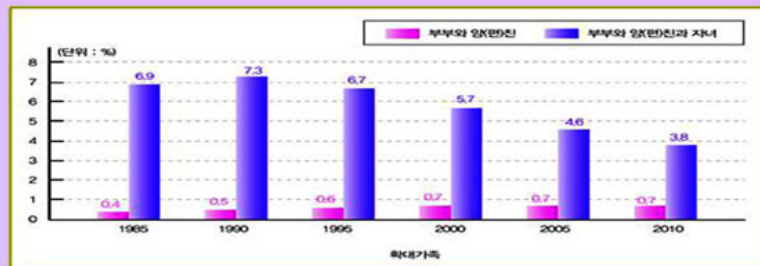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윤 연 숙 부연구위원

2010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른 인천시의 가구 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핵가족(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이 전체 가구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비율이 4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그 비율은 1990년 이후로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확대가족(부부와 양친, 부부와 양친과 자녀)은 전체의 4.5%로 1990년 이후로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8%로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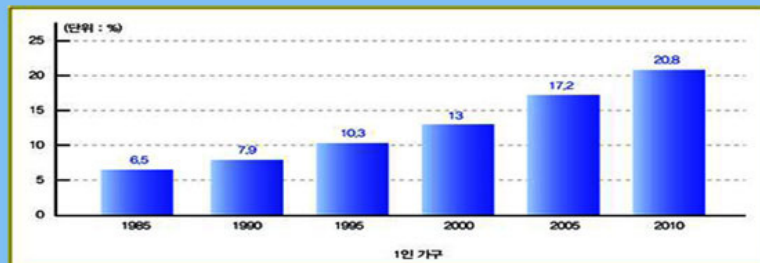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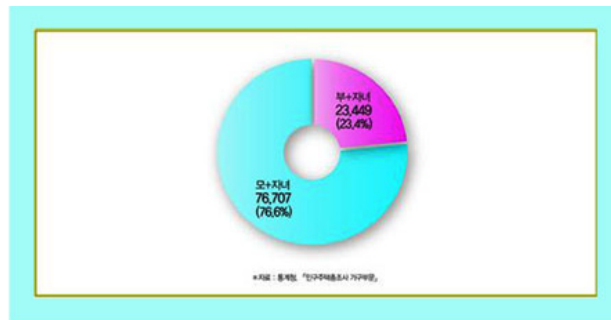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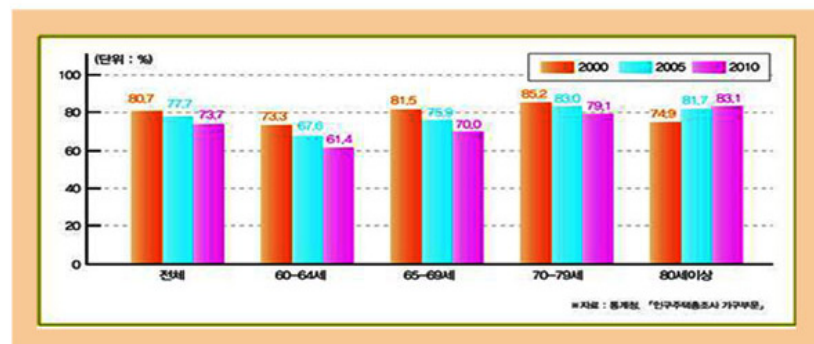
인천시의 한부모 가구는 총 100,156이며, 이 중 모+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76,707가구이며, 부+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23,449가구이다. 모+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전체 한부모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6.6%이다.

〈그림 4〉 한부모가구 현황



2010년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을 보면 전체 가구주의 73.7%를 차지한다. 연령대로 보면, 80세 이상의 여성가구주가 83.1%로 가장 높으며 70대 여성가구주가 79.1%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림 5〉 독거노인 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



2010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른 인천시의 가구 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핵가족(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이 전체 가구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비율이 4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지만, 그 비율은 1990년 이후로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